영암 성산저수지, 76억 투입 수질 개선 '무용지물'

2023년 준공…지난해 '매우 나쁨' 두 단계 하락
전남 3곳 총사업비 166억…개선 효과 점검 시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 성산저수지가 총사업비 76억원 규모의 수질개선사업을 마치고도 수질이 다시 악화돼 농업용수 목표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사업을 준공한 저수지 10곳 중 약 4곳이 목표수질에 미달하면서 시설 설치와 준공 실적을 넘어 실제 개선 효과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사업 대상은 해남 신덕, 장흥 서산, 영암 성산 등 3곳으로 총사업비는 166억6500만원이다.

저수지별 총사업비는 신덕 26억8800만원, 서산 62억9100만원, 성산 76억8600만원으로 모두 국비다. 준공연도는 각각 2018년, 2020년, 2023년이다.

이 가운데 성산저수지는 총유기탄소량(TOC) 기준 수질이 준공연도인 2023년과 이듬해인 2024년에는 농업용수 목표수질인 Ⅳ등급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Ⅵ등급으로 두 단계 떨어졌다. 목표기준에 도달한 뒤에도 개선된 수질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

수질등급상 Ⅳ등급은 '약간 나쁨', Ⅴ등급은 '나쁨', Ⅵ등급은 '매우 나쁨'에 해당한다.

반면 신덕저수지와 서산저수지는 지난해에도 Ⅳ등급을 유지했다. 전남의 사업 대상 저수지 3곳 가운데 2곳은 목표수질을 충족했으나, 성산저수지는 다시 악화되면서 사업장별 개선 효과와 관리 실태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는 전국 사업장에서도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사업 대상 45곳 중 보류된 1곳을 제외한 준공 저수지 44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TOC 기준 Ⅴ등급이 15곳, Ⅵ등급이 2곳이었다. 목표기준에 미달한 저수지는 총 17곳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했다.

이들 17곳의 총사업비는 1118억400만원이다. 특히 성산저수지를 비롯해 2024년 Ⅳ등급이었던 저수지 6곳은 지난해 Ⅴ·Ⅵ등급으로 떨어졌다. 일시적인 등급 개선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목표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준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목표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2017년 준공한 전북 고창 덕림저수지는 지난해에도 Ⅴ등급에 머물렀다. 준공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든 연도에서 Ⅴ·Ⅵ등급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사업에 자연정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식생 활착과 토양 안정화 등 정화 기능이 안정되는 기간을 고려해 목표 달성 기준연도를 준공 후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산저수지는 아직 이 안정화 기간에 포함되는데, 다만 이미 목표수질에 도달했다가 다시 악화된 만큼 오염원 유입과 시설 가동,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안정화 기간이 지난 저수지는 목표 달성 여부와 미달 원인을 따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수지 수질 문제는 농업인의 영농 부담과도 연결된다. 부유물과 조류 등으로 농업용수 이용에 제약이 생기면 다른 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뭄으로 대체할 물이 부족할 때는 저수량뿐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수질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해진다.

신 의원은 "수질개선사업의 목적은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용수 목표수질에 도달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있다"며 "공사는 기준 미달 저수지별로 오염원 유입과 시설 가동·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정화 기간 중 연차별 관리목표와 보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미국 뉴욕 자비츠센터에서 열린 '2026 뉴욕 코믹콘'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해 방문객 8000여명을 유치하고, 현지 기업과 43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콘진원, 뉴욕 코믹콘서 K-게임 북미 진출 지원

중소기업 4개사 참가…45억원 규모 수출 상담
공동관 8000여명 방문…유통·투자 협력 모색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미국 뉴욕 코믹콘에서 국내 중소 게임기업의 콘텐츠와 지식재산(IP)을 선보이며 약 45억원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 성과를 거뒀다.

콘진원은 최근 미국 뉴욕 자비츠센터에서 열린 '2026 뉴욕 코믹콘'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해 방문객 8000여명을 유치하고, 현지 기업과 43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상담액은 총 340만달러로, 한화 약 45억4580만원이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뉴욕 코믹콘은 만화·출판을 비롯해 게임, 영상, 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아우르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행사다. 콘진원은 기존 웹툰 중심이던 참여 분야를 게임과 관련 IP로 넓혀 국내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한국공동관에는 팀테트라포드, 소울엑스, 하이퍼센트, 테이크원컴퍼니 등 중소 게임기업 4개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게임 시연과 관련 상품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관람객과 기업 관계자에게 콘텐츠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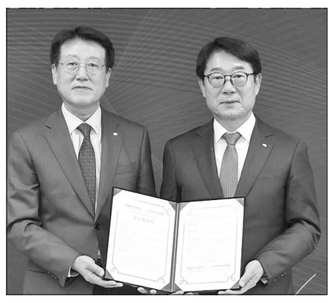
콘진원은 게임 홍보와 함께 사업 협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바이어 매칭도 지원했다. 행사 개막 전 뉴욕코리아센터에서 사전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고, 행사 기간에는 공동관을 방문한 현지 기업과 후속 미팅을 주선했다.

상담에서는 글로벌 유통과 공동제작, 투자 유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참가기업들은 게임 IP를 출판·음악·캐릭터 등 다른 산업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알렸다. 콘진원은 참가사 간담회에서 현지 반응과 상담 성과를 공유하고 해외 진출 지원 전략을 점검했다. 앞으로 현지 기업과의 교류를 이어가며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되도록 사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함천 기자

한전-전기공사협회, '안전·품질' 경쟁력 키운다

공사비·계약조건 개선 등 5대 분야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이 전기공사업계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과 시공 품질 향상을 비롯해 공사비 산정 기준·계약조건 등 현장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나선다.

한전은 최근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합리적인 공사 여건을 조성해 작업장의 안전성과 시공 완성도를 높이고, 전기공사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설비 공사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기반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시공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과 시공업계가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5대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부실시공 예방 등 시공 품질 향상, 공사비 산정 기준·계약조건 등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과제 발굴, 정례 협의체를 통한 주요 현안의 사전 공유·해소,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환경 조성 등이다.

협력 범위에는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공사 여건과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시공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공사비 산정과 계약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공사 현장의 주요 현안을 함께 살피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장의 의견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도록 소통을 이어가고, 주요 문제를 사전에 공유해 해소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한전과 전기공사업계가 안전·품질과 관련된 과제는 물론 공사환경을 둘러싼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안전관리와 시공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전력산업의 성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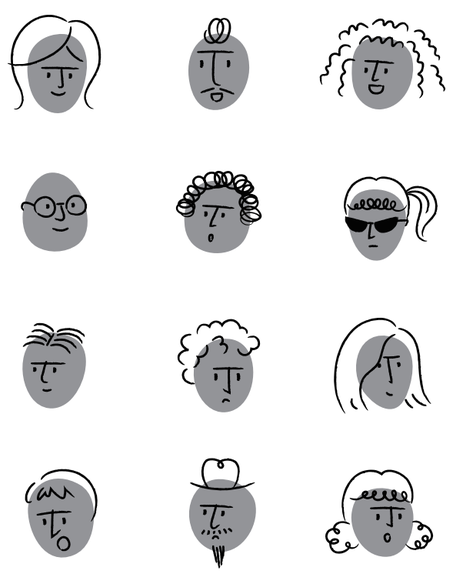
송대웅 기자

상 속 한 정 승 인 공 고
광주가정법원
o 사건번호 : 2026느단716 특별상속한정승인
o 사 망 자 : 망 노소임(290702-2******)
o 최후주소 : 전남광주 남구 서문대로 780, 110동 1303호(주월동, 제석산호반힐하임아파트)
위 망 노소임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권 또는 수중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o 공 고 인 : 1. 이예실(490301-2******)
2. 전복순(551125-2******)
3. 전호순(620218-2******)
4. 전인숙(630923-2******)
5. 전명주(681119-2******)
o 채권신고장소 : 1. 남양주시 다산중앙로20번길 7, 5401동 601호(다산동, 다산e편한세상 더퍼스트)
2.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10길 24, 401호(방이동)
3. 전남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9, 5동 603호(화정동, 우성아파트)
4. 전남광주 서구 상무민주로32번길 10, 108동 2703호(쌍촌동, 상무센트럴자이)
5. 전남광주 남구 서문대로 780, 110동 1303호(주월동, 제석산호반힐하임아파트)
o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
o 한정승인수리일 : 2026년 6월 19일
2026년 9월 28일

나주시 공고 제2026-1625호
나주 마한고도 지정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열람 공고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 마한고도 지정 요청에 앞서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나 주 시 장
1. 신청 개요
가. 신청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608.5㎢)
나. 신청근거: 고도육성법 제7조(고도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다 신청대상 및 시기: 영산강 유역 마한의 정치·문화적 중심성이 확인되는 5~6세기
라. 지정지구(안) : (면적) 4,213,275㎡ / (지정지구) 반남면, 오량동 일대 2개소 ※ 신청서 참고
2. 열람개요
가. 열람기간: 2026. 10. 9. ~ 11. 9. (30일간)
나. 열람장소: 나주시청 문화예술과 및 나주시 홈페이지
다. 주요내용: 고도지정 여건, 고도지정 가치와 의의, 고도지정 지정(안), 지구별 현황 및 육성방안 등
나. 의견제출
1) 제출기한: 열람기간 내
2) 제출방법: 서면제출(우편 또는 방문제출)
3) 제 출 처: 나주시 문화예술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청길 22)
4) 문의전화: 061-339-8152
3.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이내 제출의견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자에게 통보할 예정

광고문의
광남일보 신문 지면·홈페이지·온라인·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맞춤홍보 및 제작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해드립니다.
대표번호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e-mail gnilbo3@daum.net

세상과 함께,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구독문의 062-370-7080 / 팩스 062-370-7005

YouTube | 광남일보 iTV
전남광주의
생생한 뉴스와
현장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광남일보 iTV와 함께하세요!
LATEST NEWS
홀인원 최대 1억원! 전국 골퍼 252명 모인 광남일보·해피니스CC 골프대회
5년간 상담 7만5000건…24시간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버려진 굴껍데기가 창업 아이템? 대학생들이 나섰다
대표문의 : 062)370-7070